

환경부, 대기질도 날씨처럼 예보 실시

2014년 2월부터 PM₁₀ 전국 예보 본격 실시

환경부는 스모그 등 고농도 오염이 예측되면 하루 전 일기예보, 환경부 홈페이지, 스마트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들에게 예보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올해는 1단계 사업으로서 8월부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대상으로 미세먼지(PM₁₀) 시범예보를 실시하고, 올해 11월 전국대상 시범예보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전국 대상 정식 예보를 본격 실시한다.

또한, 내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미세먼지 PM_{2.5}와 오존(O₃)까지 예보물질을 확대하고, 예보지역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기오염 예보제 추진 일정>

구분		1단계 : PM ₁₀		2단계 : PM _{2.5} , O ₃	
시범	지역	수도권	전국	수도권	전국
예보	시기	2013.8월	2013.11월	2014.5월	2014.8월
본 예보		2014.2.6		2015.1.1	

환경부는 그간 오존 및 미세먼지 예보모델을 개발하여 지자체에 보급해 왔으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모델의 예측 정확성을 제고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예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가단위 예보제를 준비해 왔다.

또한, 환경부는 대기오염 예보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기관간 전문성을 살려 “예보제 협업체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기질 측정·분석에 전문성이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오염 예보모델을 개발·운영하고, 그 예측결과는 날씨예보에 전문성이 있는 기상청을 통해 언론사에 제공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오염 예측 시 기상청의

기상예보 모델 및 기상정보도 함께 활용함으로써 “대기질과 날씨를 모두 고려한 융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같은 대기질 예측 정보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실생활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5등급의 대기질 구간으로 표현하여 국민에게 제공된다.

대기질이 “나쁨” 이상으로 예측될 경우, 일반 가정에서는 야외운동을 자제하고, 장독대 뚜껑을 닫거나 빨래를 실내에서 건조시키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 권장된다. 그보다 낮은 “약간 나쁨” 단계라 하더라도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므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체육시간을 조정할 것이 권고된다.

또한, 이 같은 예보결과를 활용한다면 소풍과 같은 장기간 실외활동 계획시 대기오염에 취약한 학생을 위해 야외 활동시간 단축 및 마스크 준비, 관련 의약품(비염용 흡입기, 안약, 연고 등) 준비 등 사전 대비가 가능해진다.

<미세먼지 PM₁₀ 시범예보 등급>

개정 구간	좋음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	
현행구간명	좋음	보통	민감군영향	나쁨	매우나쁨	위험
예측농도 ($\mu\text{g}/\text{m}^3 \cdot \text{일}$)	0~30	31~80	81~120	121~200	201~300	301~

환경부는 특히, 천식, 비염, 아토피 등 질환이 있거나 노약자, 임산부 등 대기오염에 특히 민감한 국민들은 예보와 함께 매일매일 제공되는 동네별 실시간 대기질 측정자료(www.airkorea.or.kr)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오염 저감과 함께 대기질 예측을 통한 피해 예방도 매우 중요한데 그간 대기오염 예보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실시해 모든 국민이 이용하기 어려웠다”며 “앞으로 정부에서는 고농도 대기오염이 예측되면 방송 등 언론을 통해 알려 모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고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많은 날 생활수칙

■미세먼지(PM10) 농도 단계별 생활 수칙

- 약간 나쁨 : PM10 81 $\mu\text{g}/\text{m}^3$ 이상 ~ 120 $\mu\text{g}/\text{m}^3$ 이하
- 민감한 사람의 경우 오랜 실외 활동을 자제
- 나쁨 : PM10 121 $\mu\text{g}/\text{m}^3$ 이상 ~ 200 $\mu\text{g}/\text{m}^3$ 이하
- 미세먼지의 건강영향이 큰 계층(심장, 폐질환자,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은 오랜 실외활동이나 무리한 운동 자제 요망
- 매우 나쁨 : PM10 201 $\mu\text{g}/\text{m}^3$ 이상 ~ 300 $\mu\text{g}/\text{m}^3$ 이하
- 건강영향이 큰 계층 오랜 실외활동, 무리한 운동 제한 권고
 - 일반국민의 경우 실외활동 시간 단축 요망
- 위험 : PM10 300 $\mu\text{g}/\text{m}^3$ 이상 ~
- 건강영향이 큰 계층은 모든 실외활동 제한, 실내생활 권고
 - 일반국민의 경우 오랜 실외활동 제한 권고

< 미세먼지 높은 날 건강 생활 수칙 >

- 실외활동 시 마스크, 보호안경, 모자 등 착용
- 창문을 닫고, 대청소 등은 자제
- 세면을 자주하고, 흐르는 물에 코를 자주 씻을 것
- 과일, 채소 등은 여러 번 흐르는 물에 씻어 먹을 것
- 등산, 낚시, 싸이클링, 축구 등 오랜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필요시 수영, 요가 등 실내운동으로 대체

■부문별 생활수칙

가정 및 식품취급 장소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 최소화
- 외출 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 착용
- 외출 후에는 세수·손 씻기 등
-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 식품제조·가동, 조리 시 철저히 손 씻기
- 기계·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학교 등 교육기관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자제
- 대기오염 예보결과를 고려해 실내체육으로 대체
- 전식, 아토피질환 학생 위생 점검
- (필요시) 상비약(안약, 아토피 연고, 비염용 흡입기 등) 비치 및 마스크 착용

축산·농가 등

-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대피시켜 노출 최소화
-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 창문 등 닫기
- 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은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 (필요시) 실외경기(특히, 양궁, 축구 등 장시간 경기) 개최 자제

산업체·작업장

- 반도체, 자동차 등 기계설비 작업장의 경우 실내 공기정화 필터 점검 및 교체 또는 집진시설 및 출입구 에어커튼 설치 권장

- 자동차 수시 세차 및 실외 도장 작업시 주의 요망
- 실외 작업자에 마스크, 모자 및 보호안경 착용 등 안내 필요

교통·항공

- 항공기 및 선박 운행 시 가시거리, 안전장치 등 점검
- 운항관계자 연락망 확인 등